

지방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경험 실태 및 진로 준비에의 영향 분석

- 전북지역 K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

이 상 록*

최근 청년실업을 심화에 따른 청년실업 대책 모색과 관련하여 “재학 중 근로경험”의 효용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제고되는 추세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업 위험이 더욱 높은 지방대학생을 대상으로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 및 진로준비 효과를 실증·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청년실업대책 개선과 관련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재학 중 근로경험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방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활동 경험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으로 드러났고, 재학 중 근로경험은 아르바이트 활동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정부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도입 및 실행에도 불구하고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근로기간 및 보수수준의 제약으로 이에 대한 활용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로경험 보유 대학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전공만족도가, 직장체험의 경우에는 성별, 학년, 소속대학(계열) 등이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가족의 경제적 수준 및 계층적 지위 등은 근로경험(아르바이트 및 직장체험)과 별다른 관련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재학 중 근로경험의 진로준비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은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반면 직장체험은 일부 분 진로준비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 긍정적 기제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청년 일반층을 대상으로 재학 중 근로경험의 노동시장 성과 검증에만 치중하였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지방대학생을 대상으로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특성, 그리고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의 영향을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되지만, 조사대상자의 제한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약을 부수하고 있음은 본 연구가 지닌 한계이자 후속연구의 과제라 평가되는 바이다.

주제어 : 청년실업, 재학 중 근로경험, 아르바이트, 직장체험, 진로준비 효과, 지방대학생

* 군산대학교 교수, 사회복지학

I. 연구배경

경기회복에 따른 IMF 경제위기의 해소 및 전체 실업율의 지속적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최근 청년실업 문제는 노동시장의 주요한 이슈이자 사회 전반의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1997년도에 청년층(15-29세) 실업율은 5.7%에 불과하였으나, 경제위기의 도래와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시장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1998년도에 청년실업율은 12.2%를 기록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 2000년에는 7.7%로 일부분 감소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IMF 경제위기로 한때 8%대에 이르렀던 전체 실업율이 2000년을 전후하여 4%대로 진정되고 있음에 반해, 청년 실업율은 2003년 2월 8.8%, 2004년 2월 9.1%를 기록할 정도로 비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 및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청년실업의 심각성과 함께 경기회복 및 경제성장만으로 구조화된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제고되면서, 청년층의 실업 및 취업난 해소를 위해 관련 대책을 적극 마련,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곧, 일자리 감소라는 노동시장 변화에서 비롯되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공근로사업 및 정부지원 인턴제를 적극 도입·실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에서 필요하는 노동력의 질과 학교 교육의 불일치(mismatch)를 해소하여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제고하기 위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현장체험,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을 새롭게 도입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상과 같은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실업문제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최근에는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 및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청년실업대책의 실효성을 진단·평가하여 보고, 정책 개선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경험에 주목한 이유는,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의 최근 도입한 청년 실업대책들이 “재학 중 근로경험을 통해 취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적자본 축적 및 경력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교로부터 졸업한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입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최근의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서 야기되는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함”을 중심 목표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면, 현 청년실업대책이 실효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재학 중 근로경험이 노동시장 진입에 최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 모색이 적극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물론, “청년층의 재학 중 근로경험”에 대해서는 청년실업 문제 부각을 배경으로 일부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이병희, 2002; 채창균, 2002), 기존 연구들의 성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기존 연구에서의 재학 중 근로경험은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에서의 근로경험을 포괄하지를 못하고 단지 “아르바이트 경험”에 국한되어, 이들 연구는 현 청년 실업대책의 문제점 및 실효성을 평가함에 있어 일정정도 한계를 지닌다. 또한, 분석내용에서도 기존 연구들은 “재학 중 근로경험의 취업 및 임금 효과”에의 검증에 한정되어, 재학 중 근로활동의 실태 및 문제 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여 관련 대책의 실효성 제고에의 함의가 제한적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청년층 내적 구성의 차이, 곧 지역 및 성별 등에 따른 재학 중 근로경험 양상 및 근로경험 효과의 차이 등이 체계적으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물론,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청년 실업율로 청년층 대부분이 공히 심각한 취업난에 직면하고 있긴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심각한 지역경제의 불균형으로 지방대학생의 취업난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특히 지방대학에 대한 사회 전반의 낮은 서열 평가 및 채용상 차별 관행 등으로 지방대학생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기에, 이에 대한 각별한 주목이 필요한 실정이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중에서도 지방대학생을 대상으로 재학 중 근로경험(아르바이트 및 직장체험)의 실태 및 재학 중 근로경험의 효과(진로준비에의 영향)를 실증 분석하여 보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학 중 근로경험의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모색에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들의 검토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청소년 교육 및 노동 정책 모색과 관련하여 “재학 중 근로경험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재학 중 근로경험”은 매우 주목되는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들에서는 “재학 중 근로경험이 교육적 성과의 산출 및 졸업 이후 노동시장 성과의 산출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이론적 논의에서는 재학 중 근로경험은 성인 역할에의 사회화(socialization) 기제로 활용되어 “책임감 및 자립심의 제고” 및 “학교 교육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정립”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Shoenhals, Tienda & Schneider, 1997). 또한, 졸업 이후 노동시장 성과의 산출과 관련하여서도, 재학 중 근로경험은 “직업세계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제고하고”, “근로태도(work habit)를 정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경력을 습득하는”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Light, 2001). 반면, 일부 논의들에서는 재학 중의 근로활동 수행은 학교교육의 희생이 수반되기에 학업 성취 및 인적자본 축적 등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교육적 성과 및 노동시장 성과의 측면에서 재학 중 근로경험의 효과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Shoenhals, Tienda & Schneider, 1997).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재학 중 근로경험의 효과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적 성과와 관련하여 Marsh(1991) 및 Oettinger(1999)의 연구는 근로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데 반해, Rothstein(2001)의 연구는 주당 20시간 미만의 근로활동 경험은 오히려 교육적 성취(대학 진학율)를 제고함에 있어 긍정적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연구결과가 상반된다. 또한, 노동시장 성과 산출과 관련하여서도, Myer & Wise(1982), Light(1999; 2000), Ruhm(19997)의 연구 등은 재학 중 근로경험이 시간당 임금율, 근로시간, 근로소득 및 경제적 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반면, Hotz 등(1999)의 연구는 선행 연구들에서의 재학 중 근로경험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비관측(unobserved)

요인들이 체계적으로 개입되거나 혹은 선택 편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절하 하여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국내에서의 재학 중 근로경험에 관한 연구는 최근 청년 실업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관련 대책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연구성과들이 활발하게 양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연구들 대부분은 주로 “재학 중 근로경험이 노동시장 성과 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집중되고 있는데, 분석결과에서 제시되는 재학 중 근로경험의 효과는 외국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상반되고 있어 주목된다. 곧, 이병희(2002), 채창균(2002), 김주섭(2003) 등의 연구에서 재학 중 근로경험은 취업 및 취업준비, 직장만족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하고 있는 반면, 김우영(2002)의 연구에서는 재학 중 근로경험이 오히려 취업율을 낮추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또한 재학 중 근로경험에 부수된 임금 효과는 부재한 것으로 검증되어 분석결과가 상반되고 있다.

이상에서 개괄한 바와 같이, 재학 중 근로경험에 대한 국내외 관련 연구 성과들은 주로 “재학 중 근로경험의 효과”, 특히 “노동시장 성과” 검증에 집중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재학 중 근로경험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규명은 “청소년의 재학 중 근로활동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의미있는 부분이라 여겨진다. 그렇지만, Light(1999) 및 Hotz 등(1998)이 제기한 바와 같이, 재학 중 근로경험과 졸업 이후 노동시장 성과의 실제적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 개입되는 무수히 많은 외생 변수 및 매개 요소들의 영향, 곧 개인 내적 특성, 가족배경, 학업이수과정, 근로경력, 노동시장 특성 등의 변수들의 영향이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하는데, 조사 가능성 및 데이터의 제약 등으로 현실적으로 신뢰성 및 타당성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접근상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들의 성과와 한계를 감안하여, 노동시장 성과 분석에 주로 초점을 두기 보다는 “재학 중 근로활동 경험과 진로준비의 관계”에 분석의 초점을 두어 “재학 중 근로경험이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지”라는 연구문제를 규명하여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학 중 근로활

동 경험에 내재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모색에 주목하고자 한다.

물론, 본 연구는 특정 지역 지방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의 활용으로 인해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지만, 재학 중 근로경험의 영향을 노동시장 진입 과정의 측면에서 새롭게 분석·평가하고자 한 시도라는 점에서, 또한 이를 토대로 재학 중 근로경험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상당한 의의와 함의가 기대되는 연구일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기존 국내외 연구들에서의 근로경험에 대한 분석이 주로 “아르바이트 경험”의 분석에 국한되었을 뿐, “정책적으로 마련된 근로경험”의 효과에 관해서는 실증분석 및 평가가 수행되지 않았음에 비추어 보면, 본 연구는 다양한 근로경험들의 효과를 비교 분석, 평가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사료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데이터에 국한된 분석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일반화의 제약이라는 한계를 지니는데, 이는 후속 연구들에서 극복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III. 연구방법 : 분석 자료 및 변수 구성

1. 분석 데이터

“지방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경험 실태” 및 “이의 진로준비에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3년 10월 20일부터 2주간에 걸쳐 전북 지역 소재 K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별도의 표집과정을 통해 선정하지를 않고, 학내의 대형강좌 교양과목 수강 학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총 3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다. 최종적으로 회수된 설문지는 총 265부이었

으며, 통계분석에는 응답이 부실한 5케이스를 제외한 260케이스가 활용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본 연구는 특정 지역 대학생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 및 효과를 분석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분석결과들은 이와 같은 조사대상자의 제한성을 염두하여 이해되어야 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 변수구성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지방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 및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지방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활동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재학 중 근로활동을 수행하는 대학생의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재학 중 근로경험은 졸업 이후 진로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구체적인 연구문제로 설정하였고, 이들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을 위해 아래 <표 1>과 같이 조사설문항목들을 구성하였다.

<표 1> 조사 항목의 구성

구 분	설문 문항
재학 중 근로경험	* 재학중 근로경험 유무 및 유형(아르바이트, 직장체험) * 근로경험의 횟수, 기간, 기관, 담당업무 * 근로경험의 동기, 경로, 종료 이유, 추후 재경험 의향 * 일일 평균 근로시간, 월 평균 급여액, 업무의 적성 및 전공 부합도
진로준비도	* 진로결정도 (Career Decision Scale : 18개 문항, 5점 서열척도) * 진로준비도 (16개 문항, 5점 서열척도)
일반적 특성 : 개인 및 가족 특성	* 성별, 연령, 소속대학, 학년, 평균 성적수준, 거주형태(가족 및 친인척 동거 / 단독 거주) * 가구주 학력과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거주유형(자가/전세/월세), 주관적 계층적 지위
기 타 : 직장체험 프로그램 실태 평가	* 프로그램 운영 평가 (근로기간, 신청절차, 기관배치, 신청/배치기관의 안내 및 상담, 근로시간의 융통성) * 프로그램 내용 평가 (담당업무, 업무부담, 업무지도, 전반적인 환경) * 프로그램 활용 성과 평가 (조직내 관계 형성, 경력 형성, 직업능력 개발)

먼저, 본 연구에서 주요한 초점이 되고 있는 재학 중 근로경험은 ‘근로경험의 유무’ 뿐 아니라 ‘근로경험의 유형’, 그리고 ‘근로경험 유형별 근로활동의 양상’, 곧 참여동기, 참여경로, 일일 평균 근로시간, 월 평균 급여액, 담당업무, 적성 및 전공에의 담당 업무의 부합도 등을 통해 그 실태가 심층적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재학 중 근로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된 “진로준비” 변수는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이라는 두개의 척도를 통해 측정할 수 있도록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진로결정도”는 Osipow 등(1980)이 개발한 ‘진로결정수준 검사 척도(Career Decision Scale)’를 참조하여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진로에 대한 확신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문항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2개의 문항은 진로선택에의 확신수준을 나타내며, 다음 16개의 문항은 진로결정에의 제반 장애요소를 통해 진로결정 및 미결정 수준을 나타낸다. 이 척도는 이미 기존 연구들에서 척도로서의 신뢰성이 충분하게 검증된 바 있는데(고향자, 1992), 본 연구에서도 재학 중 근로경험의 진로준비 효과를 분석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변수로 설정하게 되었다. 실제, 본 조사에서의 18개 설문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여 본 결과에서 Cronbach’s Alpha치는 0.8817로, 높은 신뢰도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어 척도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진로준비행동” 척도는 인지적 차원이 아닌 실제적인 구체적 행위의 차원에서 진로준비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변수로, Vocational Exploration Behavoir Checklist(VEBC; Krumbolts, 1963), Vocational Checklist(VC; Aiken & Johnston, 1973), Career Exploration Survey(CES; Stumpf, Colarelli & Hartman, 1983) 등의 척도를 참조하여 마련된 것이다. 총 16개의 문항은 “진로결정을 위한 노력 정도(주변인과의 진로 상의,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적성 검사의 수행, 전문상담기관의 활용 등)” 및 “결정된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수립, 관련 자료들의 구입, 관련 교육훈련에의 참여 등)”를 행위적 차원에서 5점 척도로 측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문항들이다. 본 조사에서 진로준비행동 변수 구성 16개 설문항목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Alpha치는 0.8126으로 산출되어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척도로서의 활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항목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문제 곧 “재학 중 근로활동 경험 대학생의 특성”의 분석을 위해, 조사대상자의 개인 및 가족 특성 변수(성별, 연령, 전공계열(소속대학), 학년, 성적, 거주형태, 가구주의 학력, 직업적 지위, 가구소득수준, 주관적 계층 지위 등) 등도 주요 설문문항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조사항목의 선정은 “성별, 인종, 가구소득, 가구 유형, 성적, 학업과정 등이 재학 중 근로경험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외국의 경험적 연구결과(Shoenhals, et. al, 1997; Rothstein, 2001)에 토대한 것으로, 재학 중 근로경험 보유 대학생의 특성을 규명함에도 유용할 뿐 아니라 “재학 중 근로경험의 진로준비에의 실제적 효과”를 규명함에도 통제변수로서의 활용이 필요하다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기타 조사항목으로는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관련 문항들로, 이는 재학 중 근로경험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실제적 검토가 요청된 데서 설정된 것이다.

I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연구문제, 곧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 및 재학 중 근로경험의 효과”에 대한 분석에 앞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래 <표 2>는 조사대상자의 개인 특성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로, 성별 구성은 남학생 42.3%, 여학생 57.7%, 학년별 구성은 1학년 35.4%, 2학년 32.7%, 3-4학년 31.9%으로 분포함을 보여준다. 소속 대학별 분포는 인문·사회대 29.7%, 공대 17.0%, 자연대 42.9%, 예술·해양대 10.4%로

나타났고, 학업성적별 분포는 상위권 20.5%, 중상위권 61.0%, 중하위권 이하 18.5%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설문 응답 분석결과에서는 취업 84.8%, 창업 5.1%, 진학 10.1%로 분석되어, 조사대상자 대다수가 취업을 졸업 후 진로로 상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일반적 특성(1) : 개인 특성

변 수	항 목	빈 도(%)
성 별	남 성	110(42.3%)
	여 성	150(57.7%)
	계	260(100.0%)
학 년	1학년	92(35.4%)
	2학년	85(32.7%)
	3학년	39(15.0%)
	4학년	44(16.9%)
	계	260(100.0%)
학업성적	상위권(평균4.0 이상)	53(20.5%)
	중상위권(평균4.0~3.0점)	158(61.0%)
	중하위권(평균3.0~2.0점)	42(16.2%)
	하위권(평균 2.0미만)	6(2.3%)
	계	259(100.0%)
거주형태	가족과 함께 동거	139(53.5%)
	자취/하숙/고시원/기숙사 등	121(46.5%)
	계	260(100.0%)
전공대학	인문·사회대	77(29.7%)
	공대	44(17.0%)
	자연대	111(42.9%)
	예술·해양대	27(10.4%)
	계	259(100.0%)
전공만족도	매우 만족함	31(11.9%)
	만족함	93(35.8%)
	보통	90(34.6%)
	만족하지 못함	33(12.7%)
	매우 만족하지 못함	13(5.0%)
	계	260(100.0%)
예상진로	취 업	217(84.8%)
	창 업	13(5.1%)
	진 학	26(10.1%)
	계	256(100.0%)

다음, 아래 <표 3>은 조사대상자들의 가족 특성 변수들에 대한 분석결과로, 가구주 학력에서는 고졸(퇴) 41.6%, 중졸(퇴) 22.7%, 대졸(퇴) 20.4%, 국졸이하 15.3%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소득별 분포에서는 101-200만원 4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는 것으로, 다음으로는 0-100만원 20.6%, 300만원 이상 18.8%, 201-300만원 18.2%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주관적 계층적 지위에 대한 설문응답 결과에서는 중간층 54.4%, 중하류층 31.6%, 중상층 6.8%로,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가족의 계층적 지위를 중간층으로 표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일반적 특성 (2) : 가족 특성

변 수	항 목	빈 도(%)
가구주 최종학력	국졸 이하	39(15.3%)
	중졸(퇴)	58(22.7%)
	고졸(퇴)	106(41.6%)
	대졸(퇴) 이상	52(20.4%)
	계	255(100.0%)
	Mean : 10.95 / Min : 0 / Max : 18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35(20.6%)
	101만원 - 200만원	72(42.4%)
	201만원 - 300만원	31(18.2%)
	301만원 이상	32(18.8%)
	계	170(100.0%)
	Mean : 251.61 / Min : 0 / Max : 1,500	
가구 주관적 계층 지위	상류층	3(1.2%)
	중상류층	17(6.8%)
	중간층	136(54.4%)
	중하류층	79(31.6%)
	하류층	15(6.0%)
	계	250(100.0%)

2.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양상

그렇다면, 지방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활동 경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먼저, 재학 중 근로경험 유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 응답자 260명 중 83.1%에 이르는 216명이 대학 재학 중에 근로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평균 10명 중 8명이 대학 재학 중에 근로활동을 경험한 것임을 보여준다. 본 조사에서의 대학 재학 중 근로경험율(83.1%)은 전국 데이터에 대한 분석결과(이병희, 2003)에서의 청년층 전체 근로경험율 57.6%, 대졸자 근로경험율 64.2%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주목되는데, 이는 지방대학생의 상대적으로 높은 재학 중 근로활동 수행 양상을 시사하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데이터의 차이 및 본 연구 데이터의 제한성에 비추어 본다면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결론으로 상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저한 근로활동 경험율의 차이에 주목하여 본다면 이후 후속연구들에서는 전국적 데이터를 마련하여 지역간 대학생들의 재학 중 근로활동 경험의 차이 및 이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체계적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조사대상자들의 근로활동 유형별 근로경험을 분석한 결과(<표 4>)에서는, 직장체험 프로그램에서의 근로활동 경험 비율은 23.6%, 아르바이트 근로활동 경험 비율은 93.5%, 직장체험 및 아르바이트 모두를 근로활동으로 경험한 비율은 17.1%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곧 지방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활동은 대체로 아르바이트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청년실업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적극 도입, 추진하고 있는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활용도 및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임을 시사하여 주어 주목된다.

<표 4> 근로경험 유형별 분포

변 수	내 용		빈 도(%)
근로경험 (N=260)	없음		44(16.9%)
	있음		216(83.1%)
근로경험 유형 (N=216)	직장체험	없음	165(76.4%)
		있음	51(23.6%)
	아르바이트	없음	14(6.5%)
		있음	202(93.5%)
	직장체험/아르바이트	없음	179(82.9%)
		있음	37(17.1%)

다음으로 재학 중 근로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근로활동 유형별 경험 횟수, 근로기간, 하루 평균 근로시간, 월 평균 급여액수 등을 설문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재학 중 근로경험 횟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자는 1회(42.0%) 혹은 2회(27.0%)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직장체험의 경우는 82.0%가 1회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간을 살펴보면, 직장체험의 경우 평균 근로기간은 3.38개월, 3개월 이하의 단기간 근로 경험자의 비중은 6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체험 경험은 대체로 단기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분석에서는 평균 근로기간이 6.57개월, 3개월 이하 단기간 근로활동의 비중은 50.3%로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직장체험과 동일하게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근로활동은 대체로 단기간에 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일 평균 근로활동 시간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7.93시간, 하루 7시간 이상을 일한 경우가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주당 20-30시간만을 근로하는 직장체험에 비해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단기간에 많은 시간을 근로하는 형태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보수수준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자의 월 급여액은 평균 월 급여액은 61.4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직장체험에서의 보수가 월 30만에 불과함에 비추어 보면 아르바이트 활동을 통해 얻는 보수가 월등히

높은 편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보수수준의 분포는 단기간의 근로활동을 통해 높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편으로 직장체험 보다는 아르바이트 활동이 대학생들에게 더욱 선호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주어 주목된다.

<표 5> 근로활동의 양상 (1)

	항 목	직 장 체 험	아르바이트
근로횟수	1회	41(82.0%)	84(42.0%)
	2회	8(16.0%)	54(27.0%)
	3회	1(2.0%)	32(16.0%)
	4회	0(0.0%)	21(10.5%)
	5회 이상	0(0.0%)	9(4.5%)
	계	50(100.0%)	200(100.0%)
	Mean	1.20	2.08
근로기간	1개월	1(2.0%)	
	2개월	24(48.0%)	
	3개월	6(12.0%)	
	4개월	4(8.0%)	
	5개월	4(8.0%)	
	6개월	11(22.0%)	
	계	50(100.0%)	
	Mean : 3.38		
	3개월 이하		92(50.3%)
	4개월 - 6개월		28(15.3%)
	7개월 - 9개월		23(12.6%)
	10개월 - 12개월		10(5.5%)
	13개월 이상		30(16.4%)
	계		183(100.0%)
	Mean : 6.57 / Min : 1.0 / Max : 38.0		
하루 평균 근로시간	1-2시간		14(7.1%)
	3-4시간		10(5.1%)
	5-6시간		37(18.7%)
	7-8시간		49(24.7%)
	9시간 이상		88(44.4%)
	계		198(100.0%)
	Mean : 7.93 / Min : 1.0 / Max : 14.0		
월 평균 급여	20만원 이하		20(10.2%)
	21-40만원		43(21.9%)
	41-60만원		59(30.1%)
	61-80만원		33(16.8%)
	81-100만원		21(10.7%)
	101만원 이상		20(10.2%)
	계		196(100.0%)
	Mean : 61.40 / Min : 4.0 / Max : 200.0		

한편, 근무처 및 담당 업무를 분석한 결과(<표 6>)에서는, 직장체험의 경우는 읍면동 사무소, 파출소, 도서관 등의 공공기관이 68%,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이 19.6%, 기업체가 14.3% 등으로 나타나, 대체로 공공기관에서 사무보조 등의 단순업무 수행 등을 통해 근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아르바이트 활동은 주로 음식점(24.5%), 건설현장 및 공장(19.9%), 상점 및 편의점(18.5%), 유흥업소(15.5%) 등에서 육체노동 형태로 근로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근로활동 수행 양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6> 근로활동 양상(2)

	항 목	직장체험	아르바이트
근로활동 기관	공공기관	읍면동사무소, 시청	11(19.6%)
		파출소,경찰서,검찰청	5(8.9%)
		우체국	2(3.6%)
		인력개발원,국민연금관리공단	2(3.6%)
		초등학교	1(1.8%)
		병원, 보건소	2(3.6%)
		수련원, 도서관 등	14(25.0%)
		복지기관 및 시설	11(19.6%)
	기업체	8(14.3%)	
	계	56(100.0%)	
	음식점		102(24.5%)
	건설현장 및 공장		83(19.9%)
	상점 및 편의점		77(18.5%)
	유흥업소(당구장, 노래방 등)		64(15.4%)
	학원 및 학습지도		18(4.3%)
	신문사 등에서의 배달		18(4.3%)
	예식장		17(4.1%)
	주유소		14(3.4%)
	놀이공원 및 스키장		12(2.9%)
	공공기관		6(1.4%)
	사무실		5(1.2%)
	계		416(100.0%)
담당업무	사무보조 및 도서관리	34(68.0%)	
	순찰, 청소, 단순업무	4(8.0%)	
	자료수집 및 운영 지원	12(24.0%)	
	계	50(100.0%)	

다음으로, 근로활동의 동기, 참여 경로, 종료 원인 등을 살펴보면(아래 <표 7>), 조사대상자의 근로활동 동기는 근로활동 유형별로 상당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되는데, 아르바이트 경우는 경제적 이유(71.3%)가 주된 동기가 되고 있는 반면, 직장체험의 경우는 경제적 이유(43.1%) 뿐 아니라 경력형성 및 직업능력 개발(37.3%) 등도 주된 동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체험과 아르바이트 활동에 대한 대학생들의 기대 및 태도가 상이함을 시사하여 주어 주목된다.

반면, 근로활동에의 참여 경로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직장체험 및 아르바이트 모두 공식적 통로 보다는 비공식적 통로에 의존한 경우가 현저하게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장체험의 경우는 선후배 소개로 인한 참여가 74.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고용안정센터 및 학교 등의 안내 및 소개에 의한 경우는 25.5%에 그쳐, 정부 정책 차원의 프로그램 운영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통로를 통한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는 매우 미미한 편임을, 이는 곧 아직까지도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공식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을 시사하여 주어 주목된다. 한편, 아르바이트 경우는 더더욱 비공식 통로에 따른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직업소개소 혹은 학교를 통한 참여는 5%미만에 그친 반면, 90%에 이르는 경험자들이 친구, 가족, 전단지,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근로활동을 종료한 이유를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경우는 58.2%가 학업을 이유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종료한 반면, 직장체험의 경우는 68.2%가 연수기간이 끝나 종료한 것으로 제시되어, 근로활동 유형에 따라 종료 사유 역시 차이가 큼을 곧 비자발적인 종료가 직장체험의 경우에 있어 더욱 두드러짐을 시사하여 주목되기도 한다.

<표 7> 참여 동기와 경로, 종료원인

	항 목	직장체험	아르바이트
동 기	경제적 이유 (용돈, 생활비, 학비 마련)	22(43.1%)	139(71.3%)
	남는 시간을 활용	4(7.8%)	30(15.4%)
	앞으로 진로선택에 도움 받기 위해	6(11.8%)	2(1.0%)
	다양한 현장경력 형성과 직업능력개발 위해	19(37.3%)	18(9.2%)
	인간관계 폭을 넓히기 위해	0(0.0%)	2(1.0%)
	기타	0(0.0%)	4(2.1%)
	계	51(100.0%)	195(100.0%)
경 로	주변(친구, 선배 등)의 소개로	38(74.5%)	
	고용안정센터의 홍보물	7(13.7%)	
	학교(학과, 대학본부)의 안내	5(9.8%)	
	연수기관에서의 홍보	1(2.0%)	
	계	51(100.0%)	
	친구, 선배 등의 소개로		76(37.8%)
	가족이나 친척의 소개		33(16.4%)
	상점이나 길가에 붙은 광고 전단을 보고		28(13.9%)
	벼룩시장, 교차로 같은 곳에서		47(23.4%)
	PC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2(1.0%)
	직업소개소		7(3.5%)
	교수나 학교의 소개		2(1.0%)
	기타		6(3.0%)
	계		201(100.0%)
종료원인	학업에 열중하기 위해	11(25.0%)	113(58.2%)
	개인적 사정으로	3(6.8%)	29(14.9%)
	근로 업무와 환경이 불만족스러워	0(0.0%)	24(12.4%)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워	0(0.0%)	4(2.1%)
	연수기간이 끝나	30(68.2%)	
	보수가 적어		5(2.6%)
	방학이 끝나		19(9.8%)
	계	44(100.0%)	194(100.0%)

3. 재학 중 근로경험 보유 대학생의 특성 분석

그렇다면, 재학 중 근로활동 경험은 어떤 특성을 지닌 대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근로활동 경험 대학생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근로활동 경험과 개인 및 가족특성 변수들간 관계를 교차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보았는데, 분석결과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재학 중 근로경험 보유 대학생의 특성 분석

아래 <표 8>과 <표 9>는 근로활동 유형을 구분치 않고 재학 중 근로 경험과 개인 및 가족 특성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근로 경험과 개인 특성의 관련성을 Chi-square 검증치를 토대로 살펴보면(<표 8>, 성별, 소속 대학, 성적 등은 근로활동 경험과 별다른 관련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학년 및 전공분야에의 태도는 근로활동 경험과 의미있는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표 8> 근로경험과 개인특성의 관계 분석

변수		근로경험유무	근로경험 없음	근로경험 있음	계
성별	남성		20(18.2%)	90(81.8%)	110(100.0%)
	여성		24(16.0%)	126(84.0%)	150(100.0%)
	$\chi^2=.215$ df=1				
학년	1학년		24(26.1%)	68(73.9%)	92(100.0%)
	2학년		11(12.9%)	74(87.1%)	85(100.0%)
	3학년		5(12.8%)	34(87.2%)	39(100.0%)
	4학년		4(9.1%)	40(90.9%)	44(100.0%)
	$\chi^2=8.841^*$ df=3				
소속대학	인문사회계열		13(13.1%)	86(86.9%)	99(100.0%)
	이공계열		31(19.4%)	129(80.6%)	160(100.0%)
	$\chi^2=1.691$ df=1				
전공 만족도	만족하는 편		19(15.3%)	105(84.7%)	124(100.0%)
	보통		21(23.3%)	69(76.7%)	90(100.0%)
	불만족하는 편		4(8.7%)	42(91.3%)	46(100.0%)
	$\chi^2=5.071^*$ df=2				
학업성적	상위권(평균 4.0 이상)		7(13.2%)	46(86.8%)	53(100.0%)
	중위권(평균 4.0~3.0점)		26(16.5%)	132(83.5%)	158(100.0%)
	하위권(평균 3.0 미만)		11(22.9%)	37(77.1%)	48(100.0%)
	$\chi^2=1.765$ df=2				

$p<0.1$, * $p<0.05$, ** $p<0.01$, *** $p<0.001$

곧, 학년과 근로경험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학년에 따라 근로경험의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곧 저학년 보다는 고학년에게서 재학 중 근로활동 경험의 높음을 확인하여 볼 수 있다. 또한, 전공태도와 근로경험간 관계에서도 전공분야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근로경험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특히 전공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보통인 경우에 비해 월등히 근로활동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반면, 기존 국외 연구결과와는 상반되게, 성별, 소속대학(인문계, 이공계), 성적수준 등의 개인 특성 변수들은 재학 중 근로경험과 뚜렷한 관련성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변수들의 영향이 국내에서는 상이함을 보여주어 흥미롭다.

<표 9> 근로경험과 가족특성의 관계 분석

변 수		근로경험유무	근로경험 없음	근로경험 있음	계
가구주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14(14.4%)	83(85.6%)	97(100.0%)
	고등학교		18(17.0%)	88(83.0%)	106(100.0%)
	대학교 이상		9(17.3%)	43(82.7%)	52(100.0%)
	$\chi^2=.317 \quad df=2$				
가구소득	100 만원 이하		3(8.6%)	32(91.4%)	35(100.0%)
	101-200 만원		10(13.9%)	62(86.1%)	72(100.0%)
	201-300 만원		5(16.1%)	26(83.9%)	31(100.0%)
	301만원 이상		6(18.8%)	26(81.2%)	32(100.0%)
	$\chi^2=1.561 \quad df=3$				
주관적 계층 지위	상류층		4(20.0%)	16(80.0%)	20(100.0%)
	중류층		26(19.1%)	110(80.9%)	136(100.0%)
	하류층		11(11.7%)	83(88.3%)	94(100.0%)
	$\chi^2=2.435 \quad df=2$				

$p<0.1$, * $p<0.05$, ** $p<0.01$, *** $p<0.001$

한편, 근로경험과 가족특성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표 9>)에서는, 기존 국외 연구결과 및 일반적인 예상과 상반되게, 가구주의 학력, 가구소득, 주관적 계층 지위 등은 재학 중 근로경험과 뚜렷한 관련성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는 곧 한국사회의 경우, 특히 지방대학생들의 경우에 있어 재학 중 근로활동은 가족의 경제적 형편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이 수행되고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2) 아르바이트 경험 보유 대학생의 특성 분석

재학 중 근로경험 보유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에 후속하여, 근로활동 유형별로 근로경험 보유자의 특성을 비교 검토하여 보기 위해, 유형별 근로경험 보유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아르바이트 경험과 개인 및 가족 특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10>, <표 11>과 같이 나타났는데, 분석결과에서는 성별, 학년, 소속대학, 성적수준에 따른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지, 전공만족도는 아르바이트 경험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곧 전공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일수록 아르바이트 활동 경험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되는데, 이는 ‘대학교육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상대적으로 근로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혹은 ‘근로활동 수행이 대학교육 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여 주목된다.

한편, 가구주의 학력, 가구소득, 가구의 계층적 지위 등과 아르바이트 경험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재학 중 아르바이트 활동 수행에 가족의 경제적 배경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10> 아르바이트 경험과 개인특성과의 관계 분석

구 분	아르바이트 경험유무	아르바이트 경험 없음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계
성별	남성	23(20.9%)	87(79.1%)	110(100.0%)
	여성	35(23.3%)	115(76.7%)	150(100.0%)
	$\chi^2=.215$ df=1			
학년	1학년	26(28.3%)	66(71.7%)	92(100.0%)
	2학년	15(17.7%)	70(82.3%)	85(100.0%)
	3학년	9(23.1%)	30(76.9%)	39(100.0%)
	4학년	8(18.2%)	36(81.8%)	44(100.0%)
	$\chi^2=3.392$ df=3			
소속대학	인문사회계열	19(19.2%)	80(80.8%)	99(100.0%)
	이공계열	39(24.4%)	121(75.6%)	160(100.0%)
	$\chi^2=.945$ df=1			
전공 만족도	만족하는 편	23(18.6%)	101(81.4%)	124(100.0%)
	보통	30(33.3%)	60(66.7%)	90(100.0%)
	불만족하는 편	5(10.9%)	41(89.1%)	46(100.0%)
	$\chi^2=10.796^{**}$ df=2			
학업성적	상위권 (평균 4.0 이상)	11(20.8%)	42(79.2%)	53(100.0%)
	중위권 (평균 4.0~3.0점)	35(22.2%)	123(77.8%)	158(100.0%)
	하위권 (평균 3.0 미만)	12(25.0%)	36(75.0%)	48(100.0%)
	$\chi^2=.275$ df=2			

p<0.1, * p<0.05, ** p<0.01, *** p<0.001

<표 11> 아르바이트 경험과 가족특성간의 관계 분석

구 분	아르바이트 경험유무	아르바이트 경험 없음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계
가구주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21(21.7%)	76(78.3%)	97(100.0%)
	고등학교	21(19.8%)	85(80.2%)	106(100.0%)
	대학교 이상	13(25.0%)	39(75.0%)	52(100.0%)
	$\chi^2=.556$ df=2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4(11.4%)	31(88.6%)	35(100.0%)
	101-200만원	16(22.2%)	56(77.8%)	72(100.0%)
	201-300만원	7(22.6%)	24(77.4%)	31(100.0%)
	301만원 이상	6(18.8%)	26(81.2%)	32(100.0%)
	$\chi^2=1.997$ df=3			
주관적 계층 지위	상류층	5(25.0%)	15(75.0%)	20(100.0%)
	중류층	35(25.7%)	101(74.3%)	136(100.0%)
	하류층	14(14.9%)	80(85.1%)	94(100.0%)
	$\chi^2=4.006$ df=2			

#p<0.1, *p<0.05, **p<0.01 ***p<0.001

3) 직장체험 경험 보유자의 특성 분석

직장체험 경험 보유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 및 가족특성과 직장체험 경험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12>, <표 13>과 같이 나타났다. 직장체험 경험자에 대한 분석결과는 앞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자에 대한 분석결과와는 상이하게 나타나 흥미롭다. 곧, 분석결과에서는 직장체험 경험과 ‘성별’, ‘학년’, ‘소속 대학’ 등의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학생(11.8%) 보다는 여학생(25.3%)에게서, 저학년 보다는 고학년에게서 직장체험 경험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속 대학과 관련하여서도 인문사회계열 소속 대학생(28.3%)이 이공계열 소속 대학생(13.7%)에 비해 직장체험 경험이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아르바이트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던 전공만족도는 직장체험 경험과는 별다른 관련성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가족 특성 변수들은 아르바이트 경험과 마찬가지로 직장체험 경험과도 별다른 관련성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 직장체험 또한 가족의 경제적 형편 혹은 지위와는 무관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이상에서의 분석결과들은 아르바이트 경험자와 직장체험 경험자는 관련 특성들이 특히 개인 특성이 상이한 편임을, 이는 곧 개인별 특성에 따라 근로활동 경험에 대한 선호도가 다를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의 재학 중 근로활동 경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주목할만한 부분이라 평가된다.

<표 12> 직장체험 경험과 개인 특성간의 관계 분석

		직장체험 없음	직장체험 있음	계
성별	남성	97(88.2%)	13(11.8%)	110(100.0%)
	여성	112(74.7%)	38(25.3%)	150(100.0%)
	$\chi^2=7.352^{**}$ df=1			
학년	1학년	85(92.4%)	7(7.6%)	92(100.0%)
	2학년	66(77.6%)	19(22.4%)	85(100.0%)
	3학년	29(74.4%)	10(25.6%)	39(100.0%)
	4학년	29(65.9%)	15(34.1%)	44(100.0%)
	$\chi^2=15.561^{***}$ df=3			
소속대학	인문사회계열	71(71.7%)	28(28.3%)	99(100.0%)
	이공계열	138(86.3%)	22(13.7%)	160(100.0%)
	$\chi^2=8.292^{**}$ df=1			
전공 만족도	만족하는 편	97(78.2%)	27(21.8%)	124(100.0%)
	보통	72(80.0%)	18(20.0%)	90(100.0%)
	불만족하는 편	40(86.9%)	6(13.1%)	46(100.0%)
	$\chi^2=1.635$ df=2			
학업성적	상위권 (평균 4.0 이상)	42(79.2%)	11(20.8%)	53(100.0%)
	중위권 (평균 4.0~3.0점)	124(78.5%)	34(21.5%)	158(100.0%)
	하위권 (평균 3.0 미만)	42(87.5%)	6(12.5%)	48(100.0%)
	$\chi^2=1.941$ df=2			

p<0.1, * p<0.05, ** p<0.01, *** p<0.001

<표 13> 직장체험 경험과 가족 특성간의 관계 분석

		직장체험 없음	직장체험 있음	계
가구주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78(80.4%)	19(19.6%)	97(100.0%)
	고등학교	87(82.1%)	19(17.9%)	106(100.0%)
	대학교 이상	39(75.0%)	13(25.0%)	52(100.0%)
	$\chi^2=1.108$ df=2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26(74.3%)	9(25.7%)	35(100.0%)
	101-200만원	54(75.0%)	18(25.0%)	72(100.0%)
	201-300만원	24(77.4%)	7(22.6%)	31(100.0%)
	301만원 이상	28(87.5%)	4(12.5%)	32(100.0%)
	$\chi^2=2.309$ df=3			
가구주 관직 계층 지위	상류층	17(85.0%)	3(15.0%)	20(100.0%)
	중류층	106(77.9%)	30(22.1%)	136(100.0%)
	하류층	77(81.9%)	17(18.1%)	94(100.0%)
	$\chi^2=.888$ df=2			

p<0.1, * p<0.05, ** p<0.01, *** p<0.001

4. 재학 중 근로경험이 진로준비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대학 재학 중 근로활동 경험은 진로준비와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재학 중 근로경험이 노동시장 성과를 증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고 있는 국내외 기존 연구들이 시사하듯, 진로준비과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결정 및 진로준비활동 변수를 종속변수로, 재학 중 근로경험 여부를 독립변수로, 개인 및 가족 특성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투입하여 OLS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는데, 분석결과는 아래 <표 14>, <표 15>와 같이 나타났다.

<표 14> 근로경험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OLS 회귀분석)

구 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요인	변수	b	Beta	b	Beta	b	Beta
개인 특성	성별(여성:1)	-3.385	-.138	-3.403	-.138	-3.648#	-.148#
	2학년	4.791#	.193#	4.797#	.193#	4.259	.172
	3학년	-	-	-	-	-	-
	4학년	5.004#	.174#	5.039#	.176#	4.401	.153
	소속대학(이공계:1)	-2.712	-.105	-2.721	-.105	-2.431	-.094
	학업성적	3.084#	.181#	3.110#	.183#	3.185*	.187*
	전공만족도	5.727***	.490***	5.721***	.489***	5.562***	.476***
	예상진로(창업/진학:1)	-5.376*	-.173*	-5.377*	-.173*	-5.369*	-.173*
	거주형태(가족동거:1)	.840	.034	.816	.033	.281	.011
가족 특성	가구주의 교육년수	.316	.090	.316	.090	.292	.083
	가구소득	-8.21E-04	-.015	-8.35E-04	-.016	-1.44E-04	-.003
	주관적 계층 지위	-.525	-.034	-.526	-.034	-.555	-.036
근로 경험	근로경험 유무	5.39E-02	.002				
	직장체험 경험 유무					2.010	.068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124	-.004		
R ²		.342		.342		.345	
F		4.858***		4.858***		4.926***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먼저, 위의 <표 14>는 재학 중 근로경험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로, 분석결과에서는 재학 중 근로경험이 진로결정(진로의 구체화 및 진로선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곧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긍정적 효과를 산출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근로경험 전체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델(모델 1)에서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모델 2) 및 직장체험(모델 3)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델들에서도 근로경험 변수들은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일반적, 정책적 기대와는 상반되게 재학 중 근로경험은 대학 졸업 이후의 진로결정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15> 근로경험이 진로준비활동에 미치는 영향 (OLS 회귀분석)

구 분		모델 4		모델 5		모델 6	
요인	변수	b	Beta	b	Beta	b	Beta
개인 특성	성별(여성:1)	-4.314*	-.203*	-4.234*	-.200*	-4.828**	-.228**
	학년(2)	.232	.011	.228	.011	-1.281	-.060
	학년(3)	-	-	-	-	-	-
	학년(4)	7.342***	.299***	7.311***	.298***	5.940**	.242**
	소속대학(이공계:1)	-3.245#	-.147#	-3.240#	-.147#	-2.410	-.109
	학업성적	2.846*	.184*	2.798*	.181*	3.202*	.207*
	전공만족도	3.871***	.393***	3.903***	.396***	3.494***	.354***
	예상진로(창업/ 진학:1)	-3.152	-.117	-3.217	-.119	-3.203	-.119
가족 특성	거주형태(가족동거:1)	1.897	.088	2.001	.092	.274	.013
	가구주의 교육년수	.102	.033	.104	.034	4.363E-02	.014
	가구소득	1.548E-03	.033	1.513E-03	.033	3.025E-03	.065
	주관적 계층 지위	.207	.015	.206	.015	.206	.015
근로 경험	근로경험 유무	.434	.015				
	직장체험 경험 유무					5.010*	.197*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907	.034		
R ²		.326		.326		.352	
F		4.626***		4.644***		5.206***	

p<0.1, * p<0.05, ** p<0.01, *** p<0.001

한편, <표 15>는 진로준비활동에의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로, 여기에서도 재학 중 근로경험 및 아르바이트 경험은 진로준비에 긍정적 효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지만, 직장체험 경험은 진로준비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으로 마련된 직장체험 형태의 근로경험은 진로준비활동 제고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일정 정도 긍정적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주목된다.

이상과 같은 효과 분석 결과에 의거하면, 현재의 재학 중 근로활동 경험은 “직업세계를 탐색하고 관련 경력을 쌓음으로써, 본인에 적합한 진로를 조기에 결정하고 이를 미리 준비토록 하여 졸업 이후에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취업 이후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직장체험의 경우는 진로준비활동 제고에 일정정도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지만, 아르바이트 경험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편이라 평가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에 비추어 보면, 재학 중 근로경험이 노동시장과 학교교육의 조응성을 제고하는데에 일조하고, 구조화 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긍정적인 기제가 되기 위해서는, 재학 중 근로경험이 온전히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활동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 관리, 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및 직장체험 근로활동 수행 실태에 대한 분석결과들(<표 16> - <표 17>)은, 현재의 재학 중 근로활동이 “실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근로경험의 긍정적 효과”를 산출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을 보여준다.

<표 16> 아르바이트에서의 근로활동 수행 실태 분석

구 분	기관 선택시 적성/ 관심의 반영도		담당업무와 적성/관심의 부합도		담당 업무와 전공분야의 일치도		담당업무와 향후 직업과의 연계성		담당업무 재경험 의향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다(5)	5	2.5	3	1.5	3	1.5	8	4.0	9	4.5
그렇다(4)	23	11.4	35	17.5	18	9.0	18	9.0	53	26.5
보통이다(3)	46	22.8	70	35.0	14	7.0	54	27.0	69	34.5
그렇지 않다(2)	85	42.1	53	26.5	90	44.8	61	30.5	35	17.5
매우 그렇지 않다(1)	43	21.3	39	19.5	76	37.8	59	29.5	34	17.0
합 계	202	100.0	200	100.0	201	100.0	200	100.0	200	100.0
	Mean : 2.32 S. D. : 1.012		Mean : 2.55 S. D. : 1.041		Mean : 1.92 S. D. : 0.968		Mean : 2.27 S. D. : 1.102		Mean : 2.84 S. D. : 1.132	

<표 17> 직장체험에서의 근로활동 수행 실태 분석

구 분	기관 선택시 적성/관심의 반영도		담당업무와 적성/관심의 부합도		담당 업무와 전공분야의 일치도		담당업무와 향후 직업과의 연계성		담당업무 재경험 의향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다(5)	4	7.8	1	2.0	2	3.9	3	5.9	7	13.7
그렇다(4)	10	19.6	16	31.4	10	19.6	14	27.5	20	39.2
보통이다(3)	16	31.4	19	37.3	10	19.6	14	27.5	8	15.7
그렇지 않다(2)	18	35.3	13	25.5	25	49.0	15	29.4	12	23.5
매우 그렇지 않다(1)	3	5.9	2	3.9	4	7.8	5	9.8	4	7.8
합 계	51	100.0	51	100.0	51	100.0	51	100.0	51	100.0
	Mean : 2.88 S. D. : 1.052		Mean : 3.02 S. D. : 0.905		Mean : 2.63 S. D. : 1.019		Mean : 2.90 S. D. : 1.100		Mean : 3.27 S. D. : 1.201	

“일자리 선택(배치)에 있어 본인의 적성 및 관심 반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이 아르바이트 경우는 13.9%, 직장체험의 경우는 37.4%에 불과하여, 본인의 관심 및 적성을 반영한 일자리 선택(배치)이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활동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본인 적성 및 관심 부합도”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긍정적 응답은 아르바이트의 경우 19%, 직장체험의 경우 33.4%에 불과하여, 담당업무 역시 본인의 적성 및 관심과 관련성이 미흡함을 보여 준다. “담당업무와 전공분야의 일치도” 및 “담당업무의 향후 직업과의 연계성”에서도, 아르바이트 경험자의 긍정적 응답은 10.5%, 13.5%, 직장체험 경험자의 긍정적 응답은 23.5%, 3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담당업무가 본인의 능력 및 직업 관심에 부합되지 못한 경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들은 재학 중 근로활동 경험의 긍정적 효과가 미흡한 원인이 무엇보다도 대학생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근로활동 관리 및 운영 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임을 함축하여 준다. 또한, 앞서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아르바이트와 직장체험에의 진로준비 효과의 차이 또한 대학생의 관심과 적성을 고려한 근로활동 관리 운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함축하여 주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점에 주목하면, 재학 중 근로활동 경험이 지닌 긍정적 효과를 온전히 발현하기 위해서는,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청년실업대책으로서 온전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학 중 근로활동에 대한 관리 운영 전반에의 개선, 곧 일자리 알선으로부터 담당업무의 배치, 업무지도 및 슈퍼비전 등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과 근로활동 수행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적극 구축,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 요약 및 함의

최근 청년실업을 심화에 따른 청년실업 대책 모색과 관련하여 “재학 중 근로경험”의 효용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제고되는 추세임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년실업 위험이 더욱 높은 지방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학 중 근로활동 실태 및 효과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관련 실업대책의 실효성 제고에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 및 이의 함의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경험율은 83.1%로 전국 평균 근로경험율에 비해 20%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나, 재학 중 근로활동 경험률이 지방대학생들에게서 현저하게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상대적으로 지방대학생들에게 재학 중 근로경험률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데, 추후 연구들에서는 이의 원인 및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분석이 후속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여 준다.

한편, 근로경험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율은 93.5%, 직장체험 경험율은 23.6%인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재학 중 근로경험은 주로 아르바이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정부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직업연수 프로그램들을 적극 도입,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체험 경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로는 물론 프로그램 도입 및 실행 기간이 충분치 못한 데서 기인된 바도 있겠지만, 임금수준(30만원) 및 근로기간(6개월)이 제한되어 있는 점 역시 주된 원인으로 보여, 청년실업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근로경험 보유 대학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전공만족도가, 직장체험의 경우에는 성별, 학년, 소속대학(계열) 등의 개인 특성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가족의 경제적 여건 및 계층적 지위 등은 재학 중 아르바이트 및 직장체험 경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에서 아르바이트 경험과 전공만족도의 부적(-) 관련성은 ‘아르바이트 경험의 대학교육에의 부정적 영향’ 혹은 ‘대학교육에의 부적응 결과로서의 아르바이트 활동 수행’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보인다. 또한, 직장체험이 주로 인문사회계열 고학년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선호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석결과 역시 프로그램의 활용이 제한적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책 개선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셋째, 재학 중 근로경험이 진로준비에 미치는 효과를 회귀분석한 결과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은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활동 제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직장체험은 진로결정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긴 하였지만, 진로준비활동의 제고에는 일정 정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진로준비에의 긍정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점에 주목하면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강화가 적극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직장체험 및 아르바이트 경험자들의 근로활동 수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체로 이들이 경험한 근로활동이 대학생들의 적성, 관심, 전공분야, 직업전망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직장체험 보다는 아르바이트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더욱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태에 비추어 보면, 재학 중 근로경험에 부수될 수 있는 “진로준비 효과”, “취업 촉진 효과” 및 “생산성 향상 효과”를 적극 산출하기 위해서는, 재학 중 근로활동을 개인적 차원의 여가 활동으로만 간주하여 방임하기 보다는 정부 기구 및 대학 차원에서의 적극적 관심하에 근로활동 수행 과정 전반에 체계적 및 전문적인 관리, 개입,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 전반에의 경제구조 및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 인해 청년층의 고실업이 구조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재학 중 근로경험의 제고는 노동시장에서의 원활한 Job matching을 통한 청년실업 문제의 완화 뿐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학 교육의 조응성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 지도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재학 중 근로경험은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제대로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학 중 근로경험이 지닌 긍정적 효과가 온전하게 발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생들이 수행하는 근로활동 수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전문적인 관리, 지도가 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실업대책 실행 관련 정부 부처, 곧 교육인적자원부 및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에서 청년실업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관리체계를 마련, 운영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대학 차원에서도 대학생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재학 중 근로활동 수행 과정에 적극 개입 및 지도하는 조치가 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실업 위험 및 취업난이 두드러지고 있는 지방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련 대책의 마련 및 실행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대학 차원에서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경주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대 박사논문.
- 김우영 (2002). 학력, 훈련, 아르바이트, 자격증의 경제적 효과.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 김재원 (2003). 대학생의 취업준비 및 근로형태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 제6권, 제1호.
- 김주섭 (2003). 재학 중 일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발표집.
- 이병희·안주엽 (2001).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 (2001). 청년실업과 경력형성. 산업관계연구, 제11권, 제2호.
- 이병희 (2002).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제2권, 1호.
- 이병희 (2002). 청년층 일자리 구조 변화와 정책방향.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 (2003).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노동경제논집, 제26권, 제1호.
- 주용국 (2002). 대학생 기업연수제도 내실화를 위한 정책방향. 직업과 인력개발, 5권, 4호.
- 채창균 (2001). 청년실업의 실태 및 원인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창균 (2002). 대학 재학생의 노동시장 이행 준비 실태.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 한승준 (2003).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특성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

평가학회보, 제13권, 제1호.

- Carr, Rhoda V., James, D. Wright, and Charles J. Brody. (1996). "Effects of High School Work Experience a Decade Later: Evidence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Sociology of Education*, Vol. 69.
- Hotz, V. J., L. Xu, M. Tienda, and A. Ahituv. (2002). "Are there Returns to the Wages of Young Men from Working while in School?".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4, No.2.
- Light A. (2001). "In-School Work Experience and the Returns to Schooling".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19, No. 1.
- Meyer, R. H. and D. A. Wise. (1982). "High School Preparation and Early Labor Force Experience," R. B. Freedom and D. A. Wise (eds.),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Its Nature, Causes, and Consequenc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sipow, S. H., C. G. Carney, J. Winer, B. Yanico and M. Koschier. (1980). *The Career Decision Scale(3rd rev.)*. Columbus, OH: Marsthon Consulting and Press.
- Rothstein, D. (2001). "Youth Employment during School ; Results from two-longitudinal Surveys," *Monthly Labor Review*, Vol. 124. No. 8.
- Ruhm, j. (1997). "Is High School Employment Consumption or Invest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15. No. 4.
- Shoenhals, M., M. Tienda, B. Schneider. (1997). "The Educational and Personal Consequences of Adolescent Employment". *Social Force*, Vol. 77. No. 2.

ABSTRACT

Local University Students' Work Experience during the University Years : Analysis of Characteristics and Job Preparation Effect

Lee, Sang-Rok *

After economic crisis and labor market restructuring, youth unemployment has been a critical problem in Korea Society. Despite of government's active intervention, youth unemployment rate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government especially devote efforts to decrease the mismatch between labor market and university education by increasing youth work experience during school. But its efforts has not been evaluated to be successful.

This paper examines local university students' various work experience during the university years, and analyze features of students who have work experience and its effect on the job preparation.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is research find out that relatively local university students tend to participate more in the work activity during school. Almost their work experiences are the arbeit their work experiences under government program are few.

Secondly, this research find out that sex, grade(years of schooling), academic field, attitude to the major education are determinants of work experience during school.

Thirdly, results from this research demonstrate that work experience under the government program has job preparation effects but work experience such as arbeit does not have any effects.

* Assistant Professor, Kunsan National University

Although the government program toward the increasing work experience during school is proved to produce positive effect in some respect, the performance of the program is very insufficient. In order to the effectiveness of the work experience, the more active interventions to the students' work activity process are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and university administration.

Key Words : youth unemployment, work experience during school, arbeit, job preparation

투고일 : 5월 4일, 심사일 : 6월 9일, 심사완료일 : 6월 22일